

제 193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국민과 비국민: 대역사건과 안중근 사건을 중심으로

강연자: 우메모리 나오유키 (梅森直之)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일본 와세다대학에서의 학사와 석사를 걸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현대일본정치의 역사 전문 교수로 재직중인 우메모리 나오유키 교수의 '국민과 비국민: 대역사건과 안중근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3 월 15 일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우메모리 교수는 역사적 화해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현세대인 우리가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등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국과 대만은 자신들의 역사에 전환기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일본도 한국인이 어떤 노력을 하여 이것을 이루어 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강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메모리 교수는 대역사건과 안중근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초기 사회의 정의와 사회주의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교수에 따르면 당시의 사회주의란 국가탈환을 통한 분배를 목표로 하였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역사건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존재하였던 사회주의사상이 이론에서 시작하여 평민사(平民社)의 설립, 이후에 사회운동으로 까지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강연에 따르면 평민사의 설립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쟁에 대한 부정이다.

평민사는 1903 년 후반 러일전쟁을 부정하는 일환으로서 사회주의 그 자체보다는 전쟁은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더 많은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는 찬반여론도 있었는데,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반대의견을 내는 유일한 결사단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이상주의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우메모리 교수는 특히 평민사라는 결사의 명명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평민(平民)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일본국민들에게 그들이 국민이기 전에 개개인의 인격체라고 강조하며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사회주의사상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톨스토이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개개인에서 찾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평민사는 문제의 원인이 사회적 구조자체에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지만, 톨스토이도 평민사도 비전론(非戰論)을 주장하였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평민사의 일화에 대해서도 강연에서 다루어 졌는데, 당시 징집을 당하게 된 일본인이 일반인 투고란에 전쟁에 반대하는 자신이 징집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평민사는 명확한 대답은 내놓지 못하였지만, 단지 적군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과도한 폭력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만약 톨스토이었다면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징집에 응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의 부족이라 보았을 만한 상황 이었다.

당시의 일본의 사회주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면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가 주장한 직접행동론일 것이다. 고토쿠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반년간의 '망명'생활을 통하여 직접행동론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이민사회를 경험한 고토쿠가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개개인을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만이 아닌 디아스포라의 공간에서 상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로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맹신을 타파하기 위해선 폭력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그 자신의 주위에 모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격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안중근사건이 일본국내 사회주의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공판기록은 안중근을 단순히 범죄자로서만 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 도덕적으로 일본의 조선식민지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매개체로도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유신 이전의 폭력성은 인정하면서도, 유신 이후의 행적은 세계전체를 위한 활동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안중근 자신과도 닮아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안중근의 이해를 요구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의 평화를 위해 조선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사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안중근이 옥중에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한 것이 동양평화론의 토대가 되었다. 비록 안중근사건과 대역사건이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 우메모리 교수는 이 두 사건이 주체 당사자간에는 관련이 없을 지라도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질의응답

-감상: 일본 자유주의자들의 한계를 강연자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한일간의 최근 위안부합의 등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두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천황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정도의 극단주의적 성격의 가정 정도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일관계의 발전은 없을 것인지요.

답: 물론 한일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낙관적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한국과 일본은 대립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에 천황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죄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듯이,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밝은 미래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한일 각 국가가 과거의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고토쿠가 미국에서 유학한 후에 일본으로 와서 직접행동론을 펼쳤는데, 고토쿠는 미국에서 단순히 직접행동론 뿐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를 보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도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의 천황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답: 고토쿠는 샌프란시스코 생활 도중 겪었던 지진을 통하여 무정부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재난으로 인하여 무질서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도움이 없이도 사회체제가 운영되는 것을 경험한 후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서정연한 상황에서도, 미국에서의 중국이민자에 대한 폭력, 일본 대지진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폭력도 그와 동시에 보여졌기 때문에 완전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 또한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